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83

JCCT 2023-3-10

대학생의 개인적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values and fertility promotion policy perception on Childbearing willingness

장현정*, 이윤정**

Hyun-Jung Jang *, Yun Jeong Lee**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으로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출산장려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생 195명의 자료를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하였으며, 결혼관이 보수적일수록($r=.142, p<.05$),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r=.258, p<.01$) 출산의지와 유의했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결혼관 중 보수적 결혼관, 출산장려정책 중 청년일자리 대책,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의 인식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출산의지를 9.2% 설명하였다.

주요어 : 자녀관, 출산의지, 결혼관, 출산장려정책인식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childbirth willingness, provide it as basic data fo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and contribute to the composition of educational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ata from 195 university students using the SPSS/WIN 22.0 program. The more conservative the view of marriage ($r=.142, p<.05$) and the higher the degree of awarenes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r=.258, p<.01$), the more significant the correlation was childbirth willingness. The conservative marriage values, youth job policies,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work-family balance support influenced the childbirth willingness,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the childbirth willingness 9.2%.

Key words : Child values, Childbearing willingness, Marriage values, Recognition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정부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 등을 내놓지만 출산의 저하는 여전하며, 합계출산률은 2021년 0.81를 기록하고 있다[1]. 이러한 감소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이지만, 최근들어 낮은 출산률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1]. 저출산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잠재적 위험을 가진 사회적 문제로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년 결혼율과 출산율이 더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출산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지금 전망되는 미래보다 더 심한 변화로 올 수도 있다. 대학생은 에릭슨의 발달과업으로 볼 때,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아를 탐색하고 집중하는 시기이면서 사랑이라는 덕목을 바탕으로 친밀감을 획득하며, 결혼 등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과업이 주어

*정회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제1저자)
**정회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월 17일,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8일

Received: January 17, 2023 / Revised: February 28, 2023

Accepted: March 8, 2023

**Corresponding Author: leeyj@kkot.ac.kr

Dept. of Nursing, CATHOLIC Kkottongnae Univ, Korea

지는 예비부모로[2],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에 밀접한 관계를 맺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생들은 결혼과 출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3-4], 실제 20-44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가 2015년 미혼남성 18.1%, 미혼여성 7.7%에서 2018년 미혼남성 14.1%, 미혼여성 6.0%로 나타났다.

출산의지는 미래출생 될 자녀를 결정짓는 계획을 말하며, 미래 출산 가능성에 대한 의지로 출산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미래 계획을 의미하지만, 출산은 생각이나 계획만으로는 자녀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 출산의지는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의사나 욕구, 태도 또는 생각의 의미가 있으며, 자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난 후에 자녀가 태어나는 행태로 이어진다[5].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가족형태 및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결혼과 가치관의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난다[6-7]. 한국여성의 출산의지 결정요인에 따르면, 미혼여성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개인의 자아성취 욕구를 위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은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여 무자녀를 선택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결혼 및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는 가족 가치관과 자녀출산의지가 낮았으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남성보다 높았고, 특히나 고학력의 여성들은 자기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로 인해 출산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출산을 결정하는 주체가 반드시 여성만은 아니므로 남성의 차원에서 출산의지도 확인하고 비교하여 성별의 차이에서 보이는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저출산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녀출산을 연기하는 주요한 요인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과 일하는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체감효과는 낮게 나타났다[8-10].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고, 정부는 2006년부터 185조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에 대한 규정을 보면, 국민의 건강상 특성과 건강 위험요인이 연령 뿐 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반영된 개정이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11], 아직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가족과 사회의 문제로 인

식하지 못하고 여성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2017년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증가를 단기적인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방향성 자체는 옳은 것이라고 보여지며, 현재의 사회적 방향이 미혼성인들의 결혼과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출산장려정책 관련연구[12]에서는 출산장려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고,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요인이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예비부모로서 대학생에게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결혼하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출산의지를 높일수도 있겠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혼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출산의지를 본 연구는 결혼관과 출산의지의 관계[13], 자녀가치와 결혼동기 및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14],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15], 여대생의 결혼관, 자녀가치관,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16], 간호대학생의 가족건강성, 결혼관 및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17], 저출산의 인식과 결혼이미지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18] 등으로 개인적 가치관, 문화적 가치관을 독립변수로 특정요인이나 영역의 일부분을 범주화 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출산장려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출산의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개인적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 인식, 출산의지 정도를 조사한다.
- 2) 대상자의 출산의지, 결혼관, 자녀관, 출산장려정책인식에 따른 출산의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시 소재 일개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 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선행연구를 근거로 [19]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95, 효과크기 (f^2)=.15(medium)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184명이었으며, 195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개인적 가치관 : 결혼관, 자녀관

- 결혼관 측정도구는 총 12개 문항으로 측정된다[20]. 일반적 결혼관, 보수적 결혼관, 진보적 결혼관 3개 영역으로 일반적 결혼가치관과 보수적 결혼가치관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 결혼가치관은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일반적=.649, 보수적=.855, 진보적=.778.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일반적=.681, 보수적=.861, 진보적=.612 였다.

- 자녀관측정도구는[21] 8문항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24였다.

2) 출산장려정책 인식

출산장려정책 인식은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중 수정·보완한 총 15문항 설문지이다[20].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 주거 대책, 임신 출산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일 가정 양립지원'의 주요 5개 영역을 출산장려정책항목으로 사용할 것이다. 전체 5개 영역 15개 항목에 대하여 '전혀 도움이 안 됨' 부터 '매우 도움 됨'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각 문항의 응답을 총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우호적이며 인식

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8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03이었다.

3) 출산의지

미혼남녀의 출산의지 측정도구는 11문항이며[22], 4개의 하위영역은 개인적측면, 가족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으로 나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66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760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 수집을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총 15분 정도 소요가 되었으며, 총 210부를 배부하였으나, 최종 195부만 분석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관, 자녀관, 출산장려정책 인식정도, 출산의지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시행하였고, 개인적 가치관중 결혼관과 자녀관, 출산장려정책의 인식, 출산의지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였다.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66±2.54세였고, 남학생이 57명(29.2%), 여학생이 138명(70.8%)였다. 본인의 결혼생각에 대해서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가 121명(62.1%)가 가장 많았고 '하는 편이 좋다'가 47명(24.1%), '모르겠다'가 14명(7.2%), '반드시 해야 한다'가 10명(5.1%), '할 필요가 없다'가 3명(1.5%)였다. 본인의 출산계획은 '있다'가 86명(44.1%), '없다'가 59명(30.3%), '생각해 본 적 없다'가 50명(25.6%)였다. 출산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가 110명(56.4%), '심신스트

레스'가 55명(28.2%), '나의 자아실현 방해'가 26명(13.3%), '부부만의 시간 방해'가 4명(2.1%)였다<표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95)

Variables	Category	N(%) or M±SD
age		21.66±2.54
	Male	57(29.2)
	Formal	138(70.8)
Gender	Must be done	10(5.1)
	Better to do	47(24.1)
	May or may not	121(62.1)
Marriage values	Do not need to	3(1.5)
	I don't know	14(7.2)
	Yes	86(44.1)
Childbirth plan	No	59(30.3)
	I don't know	50(25.6)
	Economic reasons	110(56.4)
Reasons for refusal of childbirth	Stress	55(28.2)
	Couple time interruption	4(2.1)
	Interfering with my self-realization	26(13.3)

2. 대상자의 개인적 가치관, 출산장려정책 인식, 출산의지 정도

대상자의 개인적 가치관 중 결혼관 41.19±4.67점, 자녀관 24.06±5.85점, 출산장려정책 인식 60.58±8.11점, 출산의지 26.87±4.81점으로 나타났다.

개인적가치관 중 결혼관의 하위요인을 문항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결혼관 4.45±0.57점, 진보적 결혼관 3.57±0.63점, 보수적 결혼관 2.67±0.34점 순이었고, 출산장려정책 인식의 하위요인을 문항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지원 4.33±0.68점, 임신 출산 지원 4.26±0.66점, 자녀돌봄지원 4.06±0.68점, 청년 주거대책 4.03±0.70점, 청년 일자리 대책3.51±0.78순서로 나타났으며, 출산의지의 하위영역을 문항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이 3.03±0.73점, 개인적 측면 2.49±0.75점, 정책적 측면 2.25±0.69점, 가족적 측면 1.52±0.63점 순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개인적가치관, 출산장려정책인식, 출산의지정도
Table 2. Personal values, fertility promotion policy perception and childbearing willingness of subjects (N=195)

Variables	item	M±SD	Item M±SD	
Marriage values	12	41.19±4.67	3.43±0.39	
- general view	3	13.35±1.70	4.45±0.57	
- conservative view	5	13.35±1.70	2.67±0.34	
- progressive view	4	14.27±2.53	3.57±0.63	
Child values	8	24.06±5.85	3.01±0.73	
Recognition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15	60.58±8.11	4.04±0.54	
- Youth Employment	3	10.54±2.35	3.51±0.78	
- Youth Housing	3	12.10±2.10	4.03±0.70	
-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3	12.78±1.99	4.26±0.66	
- Child care support	3	12.18±2.03	4.06±0.68	
- Support for one-family coexistence	3	12.99±2.03	4.33±0.68	
childbearing willingness	Whole	11	26.87±4.81	2.44±0.44
	Male	11	26.49±3.79	2.40±0.34
	Formal	11	27.02±5.18	2.46±0.47
- Personal reasons	2	4.98±1.50	2.49±0.75	
- Family reasons	2	3.04±1.25	1.52±0.63	
- Economic reasons	4	12.10±2.91	3.03±0.73	
- Policy reasons	3	6.75±2.07	2.25±0.69	

3.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개인적 가치관 중 결혼관과 자녀관, 출산장려정책인식, 출산의지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변수별로 살펴볼 때,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질수록(r=.142, p<.05),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r=.258, p<.01) 출산의지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3>.

표 3. 대상자의 개인적가치관, 출산장려정책인식, 출산의지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Personal values, fertility promotion policy perception and childbearing willingness (N=195)

		Marriage value			Child values	Recognition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hildbearing willingness
		a	b	c		d	e	f	g	h	
Marriage values	a	1									
	b	.273**	1								
	c	-.243**	-.480**	1							
Child values		.240**	.565**	-.554**	1						
Recognition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d	.045	.177*	.028	.111	1					
	e	.159*	.180*	-.031	.145*	.559	1				
	f	.189**	.139	.030	.093	.298**	.496**	1			
	g	.104	.105	.053	.116	.425**	.413**	.617**	1		
	h	.131	.137	.082	.115	.395**	.474**	.627**	.687**	1	
childbearing willingness		-.057	.142*	.018	.029	.258**	.122	-.035	.035	-.039	1

*p<.05 **p<.01 ***p<.001

a = general view / b = conservative view / c = progressive view / d = Youth Employment / e = Youth Housing / f =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 g = Child care support, h = Support for one-family coexistence

표 4.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hildbearing willingness (N=195)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26.730	3.255		8.212***
general view	-.249	.203	-.088	-1.227
conservative view	.152	.076	.146	2.009*
Youth Employment	.616	.155	.301	3.982*
Support for one-family coexistence	-.395	.179	-.166	-2.206*
F = 5.881**		R ² =.092		

*p<.05 **p<.01 ***p<.001.

4.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자기상관에 대한 Durbin-Watson 값은 1.942로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을 보였다, Durbin-Watson 값은 2.081로 2에 근접하여 독립 VIF 값은 10미만으로 공선성 통계량에 문제가 없었다. 결혼관 중 보수적 결혼관을 갖을수록($\beta=-.146$, $p<.05$), 출산장려정책 중 청년 일자리 대책($\beta=-.266$, $p<.001$), 일가정양립지원 대책($\beta=-.166$, $p<.05$)의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대학생의 출산의지를 설명하는데 9.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표 4>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출산장려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들의 개인적 가치관 중 결혼관은 3.43±0.39점(5

점만점)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내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결혼관을 본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9].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일반적 결혼관은 4.45 ± 0.57 점, 보수적 결혼관은 2.67 ± 0.34 , 진보적 결혼관은 3.57 ± 0.63 점으로,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제도적 측면의 전통적이고 당위적인 결혼의식'인 보수적 결혼관이 가장 낮고, '결혼에 대해 개인주의적 입장의 선택적 결혼의식'을 나타내는 진보적 결혼관, '결혼에 대한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의식'인 일반적 결혼관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 출산 후 자녀양육과 사교육비 증가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당위적인 결혼관에서 선택적 결혼관으로 변화되는 MZ 세대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관은 3.01 ± 0.73 점(5점만점)으로, 중간이상 점수를 나타내며, 간호대학생의 자녀관을 본 선행연구[23] 2.87 ± 0.63 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자녀관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결혼에서 자녀가 중요하게 의미를 가진다. 서구 사회의 개방적인 성문화 유입은 인공임신중절, 혼전 성관계, 미혼모 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결혼관과 자녀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24]. 또한,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25], 자녀관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이 선택이 되지 않도록,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 인식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며, 4.04 ± 0.54 점(5점만점)으로 대학생들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우호적이며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지원이 4.33 ± 0.68 점, 임신 및 출산 지원 4.26 ± 0.66 점, 자녀돌봄지원 4.06 ± 0.68 점, 청년주거대책 4.03 ± 0.70 점, 청년일자리대책이 3.51 ± 0.78 으로 대학생의 출산장려정책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20]와 같은 결과로, 일 가정 양립지원이 출산물제고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한편, 청년 주거 일자리 대책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혼과 출산물을 기피하는 요인은 경제적 문제라고 하지만,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출산물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지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젊은 여성과 남성 모두 직장을 원하고 남

녀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내포되었다고 한다[18].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과 저출산은 별개로 접근하여야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영향요인을 다각도로 현실성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의 대학생들의 출산의지는 2.44 ± 0.44 점(5점만점)으로 중간이하의 점수를 나타냈고, 간호대학생의 출산의지를 본 선행연구[19] 2.6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 3.03 ± 0.73 점, 개인적 측면 2.49 ± 0.75 점, 정책적 측면 2.25 ± 0.69 점, 가족적 측면 1.52 ± 0.63 점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지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이 2.40 ± 0.34 점, 여학생이 2.46 ± 0.47 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던 선행연구[19]과 상이한 결과로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부모님이 원하시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낳겠다는 가족적 출산의지가 반영되어 남학생의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었지만, MZ 세대들은 남녀 각각의 개인성향이 강하고,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출산에 대한 의지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었다. 자녀를 출산해서 키우는데, 교육과 양육의 비용 상승에 따라 여성이 경제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이 출산의지에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25].

대상자의 개인적 가치관 중 결혼관과 자녀관, 출산장려 정책인식, 출산의지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질수록,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관 중 보수적 결혼관과 출산장려정책 중 청년일자리 대책,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의 인식정도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은 출산의지를 9.2% 설명하였다. 개인적 가치관은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가치관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교육을 통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2019년도 경북지역에서는 평생교육원에서 '행복한 삶과 가족' 이터닝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강후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변화로 대학생들의 인식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출산관련 현상학연구에서는 출산관련 막연한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출산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고, 출산 시 부끄러운 부분을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하였다[26]. 한번 형성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은 어렵지만, 교육을 통해 변화된 가치관은 오래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출산의지에 대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가치관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가치관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지며, 출산장려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요인 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탐색하는 반복연구와 변화된 사회 환경과 MZ세대의 젠더특성을 고려한 긍정적인 결혼관과 자녀관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출산장려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개인가치관 중 결혼관과 자녀관, 출산장려정책 인식, 출산의지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질수록,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질수 있음을 의미하며,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관 중 보수적 결혼관과 출산장려정책중 청년일자리 대책,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의 인식정도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은 출산의지를 9.2% 설명하였다. 교육을 통해 변화된 가치관은 오래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출산의지에 대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가치관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가치관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지며, 출산장려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References

[1] S.Y. Lee, "The 2023 Outlook for Population Polic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315, pp.

63-76, 2023.

- [2] Y.J. Lee, "A study of the parenthood motivation, perceptions of becoming a parent, and confidence about parental rol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92, pp. 1-18, 2015.
- [3] H.G. Kim, J.Y. Seo, "Factors impacting on the marital and childbearing willing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Vol. 52, pp. 175-206, 2012.
- [4] H.J. Kwon, Y.J. Kim, S.J. Kwon, S.A. Park, Y.M. Ahn, G.S. Oh, K.S. Le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hildbirth as a challen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 pp. 175-200, 2011.
- [5] Y.A. Park, "(The) Study on the Effective Element of Pregnancy Will," Doctoral dissertation, thesis in Public Administration at Hansung University in Seoul, 2013.
- [6] S.S. Lee,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26, No. 2, pp. 95-140, 2006.
- [7] T.H. Kim, "Personal value changes and low fertilit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102, pp. 16-24, 2005.
- [8] I.S. Lee,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ow Fertility and the Implication of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7, pp. 67-90, 2005.
- [9] S.Y. Gong,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Fertility of Married Women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 19, pp. 103-126, 2006.
- [10] J.W. Lee, "A Pathway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in Working Women with a Child: Focused on Value Factors,"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 Vol. 40, No. 1, pp. 323-351, 2009. DOI : 10.16999/kasws.2009.40.1.323
- [11] J.W. Cho,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in an Aging Society," Journal of Law. Vol. 32, No.1, pp. 11-42, 2021.
- [12] S.R. Hong, "A Study on the effect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on Childbirth: Focusing on the Birthrate and the Will to Give Birth," Doctoral dissertation, thesis in Public Administration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16.
- [13] J.Y. Kim, Y.C.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 Marriage Values and Willingness to give birth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AJMAHS)*, Vol. 9, No. 12, pp. 1025-1039, 2019. DOI : 10.35873/ajmahs.2019.9.12.090
- [14]E.J. Kim, H.J. Chung., Y.J. Jeong, “Effects of the Value on Children, the Motivation for Marriage,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on the Will to Have a Child: Multi-group Path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 40 No. 1, pp. 27-39, 2022. DOI : 10.7466/JFBL.2022.40.1.27
- [15]E.H. Kang., M.Y. Kim, E.K. Byun,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3, pp. 7-17, 2021.
- [16]E.H. Kang, M.Y. Kim, “The Effect of Marriage, Child Values, and Psychosocial Maturity on Childbirth Will of Female College Stud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uly 23, pp. 193-197, 2021.
- [17]K.H. Shon, N.H. Kim, E.S. Lee, “The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AJMAHS)*, Vol. 9, No. 1, pp. 719-728, 2019.
- [18]J.M. Park, N.Y. Shin, Y.M. Kim, S.Y. Kang, S.Y. Kim, W.Y. Ahn, “Influence of Recognition on Low Fertility and Views of Marriage on Childbirth Will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 23, No. 4, pp. 261-268, 2019. DOI : 10.21896/jksmch.2019.23.4.261
- [19]I.S. Lee, “The Influence of the Intention of Childbirth and Family Strengths on Marriage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3, pp.78-86, 2022.
- [20]C,S, Lee, “Effects of variables applied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moderating effects of marriage value and pro-natal policy perception on birth intentions among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2021.*
- [21]H, U,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Cognition about Low Fertility on Childbirth Wil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2013.*
- [22]E,S, Jeong. “Impact of views on marriage and tendency to delay marriage on childbearing intention of single company employe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5.*
- [23]Y.G. Jee, S.K. Yang, “Effects of Sexual Attitude, Value of Children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3, pp.571-581, 2019. http://dx.doi.org/10.21742/AJMAHS.2019.03.54*
- [24]K.J. Lee, E. Lee, Y.S. Park, “Comparison on influencing factors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377-388, 2016.*
- [25]J.H. Lee, J.B. Park, “The Effect of Non-regular and Female Employment Rate on Total Fertility Rate(TFR) in OECD Countri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2, pp. 15-23, 2020.
- [26] J,A, Kim, “College Students’ Thoughts on Family Participated deliver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9, No. 2, pp. 39-46, 2021. DOI:https://doi.org/10.17703/IJACT.2021.9.2.39

※ 이 논문은 2022년도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의 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